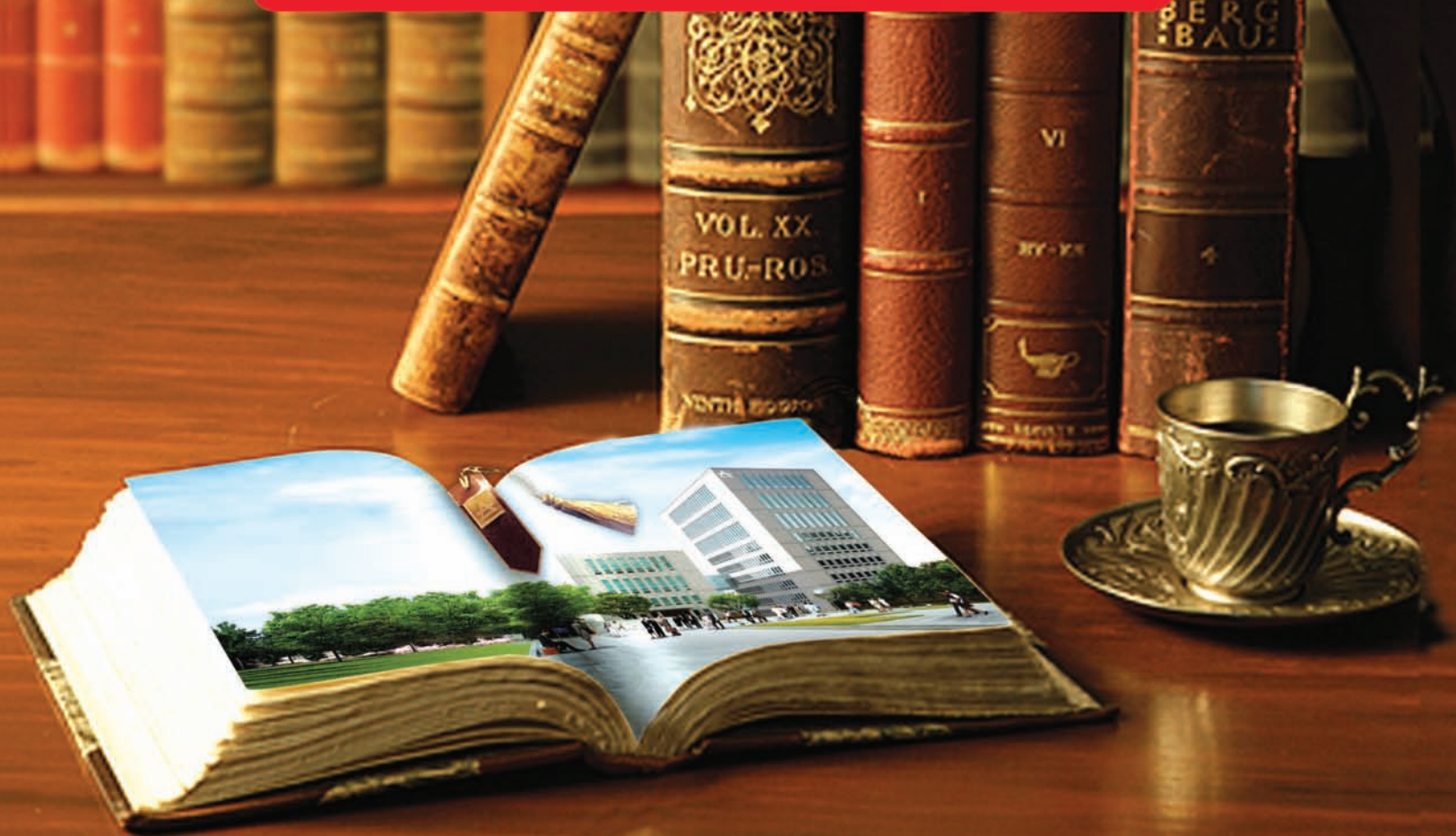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

2011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

6월 13일(월) - 7월 21일(목)

www.iscu.ac.kr



- 국내 유일 세계 e-러닝 표준화시스템 도입
- 세계 명문대학 교수 직접 강의

- 연간 50억 규모 장학혜택
- 명문대학원 최다 진학률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11 DT BRAND POWER
B

DT브랜드파워대상



SCU e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13

Cyber World 사이버 세계의 이슈 공간 SNS

SCU투데이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 은상 수상

여기 e 사람 김윤중 석좌교수 · 고도현 동문 · 박혜경 학우

Mento & Menti 김숙자(멘토) & 박현숙 · 윤소정 · 최진희 · 이은영(멘티)

Special Theme 서울사이버대학교 인기강좌 Best 5



신일스승상 수상자의 명예를 안은 주인공들. 최덕영, 한상학, 최영란, 김덕희, 강영주, 안옥연, 이혁주 교사

ISSN 2005-2049



9 772005 204905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우리 시대 참 스승과의 만남...제10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사랑과 열정 담은 교육 진실된 가르침 전하는 참 스승에의 헌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한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불어 생활하는 교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교육 여건이 달라지면서 교사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열정과 열의를 갖고 진실된 가르침을 전하는 참 스승의 존재는 있다.

글 | 편집부

20 11년 5월 14일, 스승의 날 하루 전인 이 날에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주최한 신일스승상 시상식이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신일스승상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설립자인 고(故) 이봉수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진심 어린 교육을 실천하며 교육현장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제정되었다.

신일스승상은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유일의 스승상이다. 학교장 추천으로 후보자를 접수한 후 교육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7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정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상이기에 수상자들의 자부심도 크고 교육계 안팎에서 신일스승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다르다.

특히 올해는 신일스승상의 지난 10년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신일스승상 10주년 기념집>을 특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기념집은 그간 신일스승상이 지나온 길과 함께 일평생 교육에 헌신해온 신일스승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다루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덕분에 이번 제10회 신일스승상 현장은 더욱 특별한 자리로 빛났고, 더불어 신일스승상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의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 울려 퍼졌다.

상이란 받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감격이고, 주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올해 역시 일곱 명의 교사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참 스승의 길을 보여주었다. 삼일초등학교 최영란 교사,



우리 교육 백년대계와 참스승의 표상 제시한 뜨거운 성과



경기 연동초등학교 안옥연 교사, 장안중학교 한상학 교사, 옥정중학교 김덕희 교사, 경기고등학교 이혁주 교사,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최덕영 교사, 서울광진학교 강영주 교사 7인이 바로 그 명예로운 이름들이다.



이들 교사들은 교실 수업개선에 앞장서고, 인성교육에 힘쓰며, 학생 중심의 상담활동을 펼쳐왔으며, 직업진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특수

교육 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등 저마다의 열정으로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온 이들이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신일스승상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위대한 교육 뒤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존재한다. 신일스승상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 시대 참 스승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1 신일스승상 수상자의 명예를 안은 주인공들.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최덕영 교사, 장안중학교 한상학 교사, 삼일초등학교 최영란 교사, 옥정중학교 김덕희 교사, 서울광진학교 강영주 교사, 경기 연동초등학교 안옥연 교사, 경기고등학교 이혁주 교사
- 2 신일스승상위원회 정월식 위원장님의 축사
- 3 신일스승상 시상식 전, 고 이봉수 이사장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 4 제10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현장.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평교사들의 숨은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신일스승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 5 제10회를 맞아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신일스승상 시상식 현장
- 6 지난 10년 동안 신일스승상의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발간된 <신일스승상 10주년 기념집>. 총 240면, 양장본으로 특별 제작된 기념집은 역대 신일스승상 발자취와 평생 교육에 헌신해온 수상자들의 면면을 다루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미래가 기대되는 오늘을 만드는 곳,

사이버 세계의 이슈 공간

SNS



서울사이버
대학교 소셜 미
디어 중, '서울사
이버대학교 블로그'
(<http://iscu.tistory.com/>)
는 재학생들로 구성 된 5인의
서울사이버 기자단들이 직접 참
여하고 활동하는 곳이다.

TGIF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단어는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Thanks God It's Friday의 이니셜이다. 금요일에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며 외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바로 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의 머리글자를 담아 SNS를 이끄는 핫 키워드를 뜻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란 점이다.

글 | 편집부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싸이월드가 대표적이고 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대표적이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였고, 이제는 세계인의 거대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 되었다.

정보와 소통, 토론이 모인 곳

개인과 개인을 교류시켜 주는 서비스는 인터넷 초기 시절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관심이 폭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다. 인터넷과 항상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SNS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SNS서비스의 단순함은 좁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합했다.

사람들은 SNS서비스를 이용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알게 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SNS에 올라온 이야기에 반응하고 서로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연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SNS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보, 소통,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SNS의 본질일 것이다.

SNS에서 촉발되는 여론의 파급력이 큰 이유는 정보, 소통, 토론을 통해서 공통의 관심사는 가공되고 다듬어져 세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또 잘못된 정보는 소통과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다듬어지며 사라지는 자체적인 자정 작용도 있다. 한마디로 SNS에서 흐르는 정보는 그 자체가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통하지 않아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SNS의 폭발적인 파급력에 주목한 기업들은 홍보를 위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100대 기업의 80% 가까이가 SNS를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SNS를 이용해 성공적인 홍보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물론 SNS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패를 겪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SNS의 본질에 충실한 기업들은 성공했다. 회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SNS의 특성 살려 자기계발 도구로 삼다

오프라인 세계에 원래 존재했던 것 중에 SNS의 본질인 정보, 소통, 토론을 예전부터 추구해 온 분야가 있다.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 지식에 대해 의문을 물어보고 답하며 토론하면서 이루어진다. SNS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SNS의 특성과 가능성을 캐치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재학생과 사이버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소통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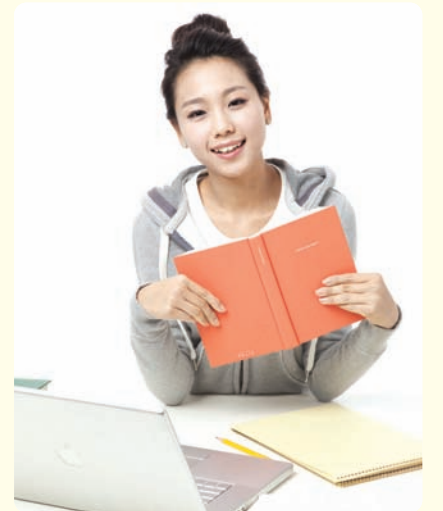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 소셜 미디어 중, '서울사이버대학교 블로그'(<http://iscu.tistory.com/>)는 재학생들로 구성 된 5인의 서울사이버 기자단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곳이다. 이곳은 서울사이버 기자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학과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6만 여명의 팔로워들과 함께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트위터'(@iscu_univ)는 팔로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여행, 패션, 건강 등의 소재로 이루어진 온라인 방송국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이버대학교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계발'의 컨셉으로 재학생 및 일반 네티즌들과 함께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iscu.ac.kr>)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학교, 학과 정보를 친근하게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은 SNS서비스를 이용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알게 된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SNS에 올라온 이야기에 반응하고 서로 대화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연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SNS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보, 소통,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SNS의 본질일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SNS의 특성과 가능성을 캐치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재학생과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소통을 시작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블로그
<http://iscu.tistory.com/>
서울사이버대학교 트위터 @iscu_univ
서울사이버대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iscu.ac.kr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 은상 수상

SCU Learning WAVE, 차원높은 이러닝 시스템으로 IT강국 매력 뽐내다

지난 5월 16일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전 세계 이러닝대회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은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이러닝 국제표준인 IMS Common Catridge를 기반으로 개발된 교수학습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는 기획, 설계, 개발, 평가에 걸친 모든 단계를 하나의 물결(WAVE)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러닝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증진과 학습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글 | 편집부

‘IMS Learning Impact Award’는 세계적인 이러닝 컨소시엄인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이하 IMS GLC)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전 세계 이러닝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참가해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력을 입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의 권위있는 글로벌 이벤트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의 은메달 수상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러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수준높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공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 이러닝의 우수성

전 세계 13개국 29개 기관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최종 콘테스트에서 세계 각국의 교수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은 학습자 편의성 및 성취도, 교수 측면의 효과, 비용절감 효과, 신규 학습자 창출, 표준 적용 현황 등 8개 분야에서 총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출품된 시스템들을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SCU Learning WAVE'는 기존 이러닝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학습도구 기능 및 수의 제약, 폐쇄성, 수동적인 학습도구, 제한된 학습경험, 높은 콘텐츠 유지 및 수정 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개념을 포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급속히 늘어나는 정보로 인한 잦은 업그레이드, 이미 개발된 콘텐츠가 있음에도 재사용하기 어려웠던 비표준 시스템 사용은 이러닝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였다.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저작툴인 유닛메이커는 SCU Learning WAVE를 통해 개발된 모든 교육콘텐츠들을 모듈화 구조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 SCU Learning WAVE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스템', 개발된 콘텐츠의 수정과 관리를 총괄하는 '이러닝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학습관리시스템' 등 총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이러닝 표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SCU Learning WAVE의 독창성과 차별성은 한번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갱신, 재구성해 새로운 콘텐츠를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서유란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닝 시장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은상 수상은 IT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대외적으로 굳힐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전한다.

SCU Learning WAVE는 'Wider Learning(폭넓은 학습자료와 학습활동을 통한 폭넓은 학습)', 'Active Learning(고등교육 수준의 학습활동이 강화된 학습)', 'Valuable Learning(다양하고 활발한 상호작용과 개별학습자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준 높은 학



Mini Interview

콘텐츠개발팀 김시원 부처장

SCU 이러닝 시스템, 교육의 질 높이는 데서 해답 찾아

“어떻게 하면 이러닝으로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임하는 김시원 부처장의 첫 화두는 이것이었다.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표준화 연구,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9년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이러닝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됐습니다. 솔루션도 많고 시스템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이러닝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러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군요.”

초반에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처장은 강한 신념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결국 서울사이버대의 전 직원이 총력전을 벌인 덕분에 SCU Learning WAVE는 세계대회 은상이라는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때문에 김 부처장은 이번 쾌거 뒤에는 모두의 땀이 서려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일에 매달릴 생각이라한다.



습'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IMS GLC의 Rob.Abel 회장은 SCU Learning WAVE를 “이번 출품작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most favorite) 출품작”이라고 소개했으며, IMS의 원로 개발자는 “매우 잘 만들어진(well done) 출품작”이라고 극찬했다. 이처럼 세계에서 인정받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행복한 이러닝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WAVE’는 고등교육을 이러닝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이러닝 콘텐츠의 설계, 개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반한 수업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시스템(LCMS)·콘텐츠 관리시스템(LCMS)·학습관리시스템(LMS)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됐으며, 2개의 독자적인 콘텐츠 저작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성공의 열쇠로 미래의 문 활짝 연 아시아의 빌 게이츠

김윤중 석좌교수

김윤중 석좌교수는 “성공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목표 그 자체는 아니다. 인생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다. 레이스는 결승점에 들어서는 순간 끝나지만 인생은 결승점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레이스다.” 라고 말한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삶을 일구어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실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상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존재한다. 꿈 · 희망 · 미래재단 이사장인 김윤중 석좌교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전해주는 훌륭한 성공 모델이자 멘토다.

글 | 편집부

김 윤중 석좌교수(이하 교수)의 하루는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간다. 하지만 김 교수는 강의나 강연에 나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활동을 빼놓지 않는다. 실제로 김 교수가 등장하는 곳마다 청중들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1976년, 단돈 200만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2조원의 신화를 이룬 사나이의 인생에 담긴 열정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기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노력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0분기 동안 60전 60승을 치렀어요.”

200만원을 2조원으로 만든 사람

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의 열망을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던 시절, 하지만 모두가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건 아니었다. 그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김 교수가 잡았던 터닝포인트는 중소기업 입사였다.

“대학 시절의 전공을 살려서 미국 대기업 엔지니어로 입사했지만, 기계 부속품처럼 틀에 박힌 생활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그걸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시 신문을 열심히 뒤져서 새로운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93년 자일랜을 창업한 후, 1996년에 나스닥 상장을 일궈낸 그는 불과 창업 5년 만에 이 회사를 직원 수 1,500여 명, 세계 60여 곳에 판매 지사망을 갖춘 대규모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 제작업체로 만들었다. 연 매출액이 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렀던 이 회사를 1999년 프랑스 알카텔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에 매각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지 약 30년 만의 일이었다. 이런 놀라운 성공으로 인해 김 교수는 일각에서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하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빌 게이츠와 달리, 그는 인종차별과 가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다. 때문에 그의 성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행복을 주도하며 성공에 이르는 삶

어쩌면 용기나 도전, 열정 같은 말은 너무도 흔해서 감동을 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김 교수의 강연을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힘이 생긴다. 형그리 정신, 열정, 목표, 자신감, 자존감, 호감도, 소통 등 김 교수가 말하는 7가지 성공 키워드는 모두 그가 직접 경험했기에 더 진정성을 지닌 단어로 되살아나 가슴 깊이 감동을 전해준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07년 영구 귀국해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이유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고, 참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가 설파하는 성공이론 속에는 요즘 대세라 할 수 있는 처세술이나 경영 노하우는 등장하지 않는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스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꿈 · 희망 · 미래재단을 설립한 것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일은 사람을 성장시켜 삶을 스스로 키우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김 교수는 “성공한 삶보다는 행복한 삶이 더욱 가치 있다.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인생 여정을 지나왔기에, 일하고 공부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는 김윤중 석좌교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의 삶이 또 한 번 진한 감동 스토리를 전해줄길 기대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타고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가난의 극복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가난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젊은이들이라면 여러 형태의 경험이나 방향을 통해 인생을 배워야 한다.”는 조언을 남긴 김윤중 석좌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고도현 동문 (법무행정학과 04년 졸업)

아주 자랑스러운 선택,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 살고 있어요!

아름답다! 고도현(39) 동문을 표현하는 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또 있을까.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지 어느덧 7년째. 개인의 이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일이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환경운동가’란 타이틀에 후회를 한 적이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어서 더없이 행복할 뿐이라고.

글 | 편집부



(주)에이피홈 대표이사

박혜경 학우 (노인복지학과 4학년)

정말 살 맛 납니다. 노인들 위한 ‘소품 디자인’ 하고파

흔히들 얘기한다. ‘인생은 타이밍’ 이라고. 그 표현에 박혜경 학우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했던 순간, 우연찮게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를 알게 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편의 드라마가 연상된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 박혜경 학우를 만나 보자.

글 | 편집부



500년생 회화나무가 아름다리 펼쳐진 (사)시민환경연구소 앞뜰, 다소 거칠지만 푸근하기 이를 데 없는 풍경이다. 자연 그대로를 존중해 가꾼 까닭이다. 진한 꽃내와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종로’라는 지리적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놀라워하세요. 서울 한가운데에 이토록 싱그러운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웃음).”

간호사로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던 고도현 동문이 별안간 병원을 그만두고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5년이였다.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톡톡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최근 기형아 출산율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언지 아세요? 바로 오염된 환경 탓이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인간이죠. 뭐.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오래도록 자연의 이치를 거슬렀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목에 칼끝을 겨누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고도현 동문은 중형무진 활약했다. 어린이 용 매트 · 장난감 · PVC 의료팩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 첨가제 ‘프탈레이트(phthalat)’가 검출되는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캠페인에 앞장섰던 것. PVC 의료팩의 경우, 구연산염을 이용한 친환경적 소재로 전량 교체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녀는 실로 준비

된 환경운동가였다.

“국가나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과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행정 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편입했죠.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법무행정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더구나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처럼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아주 드물잖아요.”

고도현 동문은 올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진학, 환경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인위적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환경독성학에 관심이 많으며 특별한 열의를 내비친다.

“하루 빨리 모든 이들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생의 최대 가치관으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운동’이라는 조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도록 말이에요. 그날을 위해 저 역시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함께해 주시고요.” 환경운동가로 살 수 있어 매일 가슴 뛰다는 고도현 동문.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청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아 기자기한 액세서리에서부터 크고 작은 인테리어 용품까지, 기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위치한 (주)에이피홈 사무실에는 어느 하나 박혜경(45) 학우를 닮지 않은 것이 없다. 전부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상품들이니 당연하다.

“원래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이탈리아 유학 기간 동안 소품 디자인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해당 분야와 관련해 한층 심도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고, 디자인경영 과정까지 수료한 뒤 지난 2010년 (주)에이피홈을 설립하게 되었죠.”

지금은 (주)에이피홈이 중국 상해를 비롯하여 국내외 총 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디자인소품 업체지만, 박혜경 학우에게도 모진 세월은 있었다. 갑작스레 이루게 된 부와 뒤따른 실패, 그리고 자궁암 선고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고.

“20대 시절이었어요. 재미로 시작한 액세서리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저와 제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세 채나 생겼죠. 그때 정말 성공이 별것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크게 사기를 당했죠. 엄청난 데 엄청난 격으로 자궁암 선고까지 받게 돼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는지 몰라요. 설거지를 하던 중 싱크대를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절 버리실 겁니까?’ 소리 지르며 통곡한 적도 있어요.”

다행히 자궁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건강도 금세 회복됐다. 그러나 박혜경 학우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찾아야만 했다. 새롭게 주어진 삶을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던 까닭이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다. 궁리 끝에 박혜경 학우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미술치료에 뛰어 들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숫자로는 감히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얻었으니까.

이후 박혜경 학우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 보다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온라인학습 시스템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사업가인 저한테는 안성맞춤이었죠. 더구나 노인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국내에 많지 않았거든요. 교육 인프라가 탁월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장애인 · 다문화가정 여성 · 탈북자 등을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주)에이피홈의 CEO답게, 최근 박혜경 학우는 노인들을 위한 소품 디자인에 열심이다.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데.

“서울사이버대학교 덕분에 자존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 저도 사회에 뭔가 보답을 해야죠. 앞으로 저와 저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로운 그녀는, 노인들에 대한 애정을 담백 담백 오늘도 새로운 소품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 김확용 군에게 'To the World No.1'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글 | 오창환 교수(컴퓨터정보통신학과)



학교 교정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서 장관을 이루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초여름이 성큼 다가왔구나. 아마도 처음 확용 군을 만난 것이 작년 입학식 때였지. 자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에 내 마음도 한층 환해졌던 기억이 생생하구나.

회사일 하라, 학교 공부 하라 많이 힘들지? 거기에다가 자네는 우리 학과대표도 맡고 있으니 얼마나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겠는가? 학과 행사 때면,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한명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학과장으로서 무척이나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네. 올해 3월 입학식 뒤풀이 때에는 예년보다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뒤풀이 장소 예약하기도 쉽지 않았고 거기에다 경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도 많이 했었지? 때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학과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을 위해 더욱 수고해 주기를 부탁하네.

확용 군, 우리 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경쟁학교를 따돌리고 국내 No.1 사이버대학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학교는 국내의 최고 사이버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야 그야말로 'To the World No.1'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꾸준히 전진해 가고 있다네.

우리 컴퓨터정보통신학과도 학교 발전 속도와 함께 세계에 우뚝 솟는 그야말로 세계 명문학과가 될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하네. 그 때에 우리 컴통인들이 지난날들의 고생스러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커다란 자부심으로 뿌듯해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환한 미소가 지어진다네. 교수와 학생, 동문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밝은 미래를 향해 조금씩 참아보았으면 하네.

나의 사랑하는 제자, 확용 군.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네. 직장과 동시에 학교생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기 바랄게. 이만 줄이네. 안녕하...

2011. 5. 24.



아버지 같이 인자한 오창환 교수님께 오늘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글 | 김확용(컴퓨터정보통신학과 4학년)

교수님을 처음 뵈는 지도 벌써 1년 하고 5개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교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 교수라는 존재감 보다는 아버지 같은, 삼촌 같은 친근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이런 저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졸업한 학과 선배들도 교수님을 뵈러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훗날 졸업한 후에 찾아가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임원직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이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단체의 대표를 맡아본 일은 군대생활 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옆에서 저를 믿어주시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학과대표를 힘들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교수님 뵈는 때 항상 학과를 위해서 뭔가 하나 더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나중에 한 단체의 장이 될 때 교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를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학교가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만큼 컴퓨터정보통신학과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과 중의 하나로 발돋움 했으면 합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출신 중에 사회에서 이름을 떨치는 이도 있어 훗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출신이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분명 그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함께 지난날을 생각하며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1학기를 종강하면 2학기가 옵니다. 올해 4학년인 저에게 학과생활은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이라도 남은 열정을 다 쏟아 부어 학과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2011. 5. 30 제자김확용 드림



금년 스승의 날 오창환 교수님과 함께

복지시설경영학과 김숙자(멘토) & 박현숙 · 윤소정 · 최진희 · 이은영(멘티)

생각만으로도 든든한 사이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파

멘토와 멘티로 인연을 맺은 지 4개월째. 누군가를 잘 안다고 하기엔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김숙자 멘토와 그녀의 멘티들은 이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들이 근간을 이룬 까닭이다. “멘토와 멘티는 단지 앞서고 뒤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단단히 엮혀서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모양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들. 그래서 조 이름도 ‘버팀목’이라 하였다.

글 | 편집부



여름 햇살을 받아
초목이 투명하
게 흐드러지던 어느 주
말, 「멘토링 경영 워크
숍」에 참석하기 위해 모
처럼 본교에 모인 김숙
자 멘토와 멘티들은 그
간의 안부를 묻느라 여
념이 없었다. 더구나 다



섯 명이 한자리에 둘러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하니,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따사로운 눈빛과 진심 어린
조언, 소소한 농담 등을 주고받는 모습은 흡
사 모녀지간 혹은 자매지간을 연상케 했다.

알게 되어 고마운 존재

김숙자 올해 초, 학교로부터 멘토 제의를
받고 내심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박현숙 무슨 말씀이세요. 멘토님 안 계셨으
면 제 학교생활은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웃음).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습 노하우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 동기들한테 들어서 익히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잖
아요. 모두 멘토님 덕분이예요.

최진희 특히, 멘토님께서 전수해주신 교안
작성법은 공부의 기본이자 핵심이었죠.

윤소정 맞아요! 사실 저는 멘토링 서비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어요. ‘공부야 혼자 하
는 거지, 무슨 멘토링?’하고 콧방귀를 뀌었
죠. 멘토님께서 ‘이런 방법이 도움 된다, 그
내용은 꼭 체크해라’ 살뜰히 조언해 주셔도
거만하게 그냥 넘기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첫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세상에! 머리가 멍
해지더라고요. 멘토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공부했다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지
뭐예요. 결국 온전히 답안을 채우지 못했고,
성적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김숙자 지금은 제게 가장 전화 많이 하는

멘티님이시잖아요.

윤소정 정말요? 하하하! 제가 너무 귀찮게
헤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밤낮 가리지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드리
거든요. 그럼 늘 그렇듯 인자한 목소리로 받
아주세요. 여러 멘티들을 고루 챙기시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닐실 텐데..... 꼭 엄마 같
아요.

이은영 때론 큰언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입학식 날이 생각나네요. 내성적이어서 사
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먼저 와 ‘은영 씨!’ 하고 반겨 주
시더라고요. 순간, 뭇지 모를 친밀감과 소속
감이 들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확 생기더
라고요.

김숙자 아, 그랬어요? 제가 멘토로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
었는데, 멘티님들 얘기를 듣고 나니 뿌듯하
고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뜻으로

최진희 멘토님은 저희한테 그야말로 지극
정성이세요.

이은영 언제나 먼저 연락 주시고, 혹시나
학교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나 꾸준히
보살펴 주시죠. 낮을 많이 가리는 제가 자발
적으로 학교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교류하
게 만드셨을 정도예요. 감사하고, 한편으론
죄송스럽기도 하죠.

김숙자 썩스럽네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
요. 봉사나 동아리 활동도 함께하자고 적극

조를 작성이니 모두들 각오해요(웃음).

윤소정 하하. 저는 준비됐습니다, 멘토님!

김숙자 역시 윤소정 멘티님은 시원시원하
시네요(웃음). 멘토를 자처하는 학우들이 늘
어나서 ‘1:1 멘토링’이 현실화되면 멘티들
이 훨씬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나마 저희 복지시설경영
학과가 타 학과에 비해 멘토링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인데 말이예요.

박현숙 저희가 잘 배워서 멘토링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 되죠. 멘토로서 말이예요.

최진희 그러네요. 김숙자 멘토님의 멘티들
이니, 저희도 분명 따뜻한 멘토들이 되겠죠.

윤소정 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과거의 저한테선 찾아볼 수 없었
던 마인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는 멘토님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인생의 선배로도 삼을까 해요. 제가 요즘 육
아 때문에 부쩍 힘들거든요(웃음).

김숙자 여러분,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어
지러워요(미소). 저는 그저 제가 앞서 경험
한 것들을 멘티님들한테 귀띔만 해드린 건
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멘토와 멘티
는 절대 상하관계가 아니예요. 서로한테 힘
이 되어주는 동반자죠.

박현숙 멘토님도 고단한 일 있으시면 언제
든 저희한테 기대서야 해요!

김숙자 어머 눈물 나려고 해요. 좋아요.
앞으로도 서로를 열렬히 지지하고 도와주
는 버팀목으로 더불어 살기를, 우리 약속
해요!

SCU 온라인 학습수기

공정 마인드 갖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내 형편에 너무 사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학하게 된 이유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타의에 의한 권유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아예 끝까지 갈 수 없다면 시작도 말하며 수업도 안 듣고, 아니 강의실을 찾지도 않았다. 출석도 엉망이었고 모든 게 다른 학우들과 동떨어진 다른 길로 가고만 있었다. 이처럼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 난 너무 바쁜 사람이야”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을 때 가까운 선배님과 특히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자퇴하려는 나를 걱정해주고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아낌없는 조언을 주었다.

글 | 국인숙(부동산학과 2학년)



그래 시작하자
나도 할 수 있다!

입학한 이후 자퇴를 결심하고 지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그래 시작하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강의실을 찾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았다. 우선 이러닝 학습, 항상 강의를 직접 들어야 학습이 되는 사항이라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또 다이렉트 질의가 아니라 Q&A를 이용해야 하고 더욱더 생소한 것은 사이버시험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다시 겁을 먹고 망설이고 있을 무렵, 1학년 전체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선배님들과 학우들의 부탁으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이때 On-line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Off-line도 함께해야 성공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모든 걸 긍정적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자라고 큰 결심을 하고 무조건 강의를 들었다. 시간이 안 되면 프린트한 교안을 먼저 읽고 어떤 질문이 올라왔나 Q&A게시판에도 가보고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라는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입학을 하기 전보다 몇 배로 빠르게 지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배로 힘들게 지내는 사이에 나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어떤 즐거움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나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효과적인 이러닝 학습의 방법은 긍정적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시스템과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주어질 수 있다. 자퇴를 결심하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낸 나는 좋은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인연으로 새로운 삶을 산

다는 각오로 강의에 충실히 임했다. 물론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결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라는 각오로 지나쳐버린 입학 초 시간을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총학, 학과, 지역에서도 임원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제의까지 받았다. 입학초기, 자퇴를 결심했던 나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1년 뒤인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우수 장학생이 되고 나니 이제야 정말 바빴던 2010년의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뿌듯한 작은 미소가 지어진다.

수기를 정리하면서 정말 나만의 작은 경험을 보이려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만, 이러닝 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이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혼자가 아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처럼 낯선 곳에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는 분,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나누어 드리고 싶다.

대학특성화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

전문가에게 듣는 미래 대학이 나아갈 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난 5월은 ‘대학특성화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로 뜨거웠다. 5월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유한구 소장을 시작으로, 9일 이현청 상명대학교 총장, 30일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특강 시리즈는 대학특성화의 개념과 성과, 동향과 과제, 대학평가 등의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학특성화 특강 시리즈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았다.

글 | 편집부



SCU 대학특성화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 1 - 대학특성화의 개념과 성과

이번 특강의 첫 강연자로 나선 유한구 소장은 대학특성화의 개념과 성과를 주제로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주장했다. 대학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유 소장은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사례를 제시하며 그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고등교육경쟁력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정보를 연구·생산해내는 능력이며, 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학이 글로벌 인재의 주요한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CU 대학특성화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 2 - 대학특성화의 동향과 과제

지난 9일 진행된 이현청 총장의 강연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 총장은 이에 따른 대학특성화 동향도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방법 역시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일개의 작업을 해야 하며, 넘쳐나는 정보를 유용한 지식으로 변경시키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미래 대학은 학위수여공장(diploma mill)에서 콘텐츠 공장으로 이행될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커리큘럼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거대 대학 중심의 특성화를 이루고 있는 중국, 컨소시엄 위주의 특성화를 이룬 유럽의 대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학생 유치와 인턴십 기반 커리큘럼, 경험중심 학점제 등 보다 실용적 측면에서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SCU 대학특성화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 3 - 대학특성화와 대학평가

글로벌 사회의 화두를 대학 경쟁력 강화라고 주장하는 이영호 원장은 ‘오늘의 대학 경쟁력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며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최근 국경 없는 대학교육 시대의 도래로 해외 유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이동하는 고등교육 수요자의 보호가 급선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 학위와 자격증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에 대한 협약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육과 산업계 요구의 불일치, 높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능력의 부족 등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학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모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학교육 공급자로서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부하는 즐거움...서울사이버대학교 인기강좌 Best 5

명품 교육콘텐츠로 지적 기초체력 쌓기, 머리와 가슴 함께 키우는 인기강좌

알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하기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성화된 학과 구성과 타 대학과는 구분되는 차별화 된 콘텐츠가 재학생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직접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듯 생동감 있는 '크로마 강의'를 비롯하여, 3D 영화처럼 강의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강의' 등은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강의 방식이다. 여기에 실력있는 교수님들의 명강의로 수강신청 기간마다 본교의 학생들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사·인이 선택한 최고의 인기강좌는 무엇일까? 재학생들의 교양과 품위를 쏙 키워주고 있는 명품 강의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글 | 편집부

01

스피치 트레이닝
Speech Training

송승철 교수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고민 중인 학생이라면 교수진, 재학생 규모, 샘플강의 등을 비교해 본다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샘플강의와 커리큘럼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를 표현하고 남을 설득하는 대화의 기술

송승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괜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된다.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스피치, 즉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과목에서는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스피치 기술을 배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지혜롭게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피치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전스피치를 대비하여 음성표현, 즉 발음, 발성부분을 매시간 연습하고,

스피치 이론을 공부하여 내실을 기한다. 실전 스피치 트레이닝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 넘치는 능변가가 된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다.

재미도 실력도 차곡차곡 쌓이는 기초의 힘!

중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어렵기만 한 영어, 특히 영문법을 쉽고 즐겁게 학습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다. 최소한의 문법으로 최대한의 표현에 목표를 둔 기초영어 강좌는 당장 활용이 가능한 문장들을 소재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전100%응용 가능한 문법을 익힌다. 공남희 교수님의 낭랑한 음성과 명쾌한 강의 진행방식은 이미 많은 재학생 추종자를 불러 모았다. 어린아이와 달리 성인들은 모국어 체계가 잡혀 있어 기초 문법을 튼튼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공 교수님의 설명. 본 강좌는 문법과 함께 기본 어휘강화에 중점을 둔 학습방법을 통해 올바른 문장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장의 글을 쓸 수 있게 한다.



우아한 취미생활, 깊이 있는 영화 읽기

현대인들의 여가선용 수단으로 손꼽히는 첫째가 바로 영화 관람이다. 본 강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지친 심신에 작은 휴식을 선사하는 영화라는 매체를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영화가 갖는 복합적인 요소를 시나리오와 촬영이라는 특수한 측면부터 이데올로기와 이론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여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중간고사 이후 배우게 되는 한국 영화사에서는 영화의 역사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의 연기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취미생활과 병행 가능한 인기강좌로 손꼽히고 있다.



직장인 재학생들의 사회생활 돕는 일등공신 강의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형성되는 갈등에 대한 고민과 더 나아가 협상에 이르는 방법론을 배우는 강좌다. 사이버대의 특성상 재학생의 대다수가 직장인인 만큼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강의 중 하나로 꼽힌다. 매 순간 설득과 협상이 필요한 현대 직장인에게 필요한 필수 교양과목인 것. 본 강의는 현대 사회의 조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성격과 원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갈등 관리 체계와 전략 등을 여러 가지 모형에 근거를 두고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협상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요소와 기법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는 행복한 공부

경영(management)이란 매혹적인 단어를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삶 속에서 녹여내어 생활경영으로 승화시킨 독특한 강의다. 본 강좌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 습득이나 시험성적에 높은 관심을 둔 수강생보다는, 삶과 생활을 경영이란 시각에서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효율적인 삶과 웰빙적인 삶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삶과 관련된 일상의 측면들을 경영이란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데 초점을 둔 수업이다. 구체적으로 생활경영의 범주에는 경영과 인생, 시간경영, 휴테크경영, 가족경영, 중년경영, 노후관리, 건강경영, 재테크관리, 은퇴 후 30년老테크, 신용관리, 스트레스관리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02

기초영어
Basic English
공남희 교수

03

영화의 이해
Understanding
Motion Pictures
유수연 교수

04

갈등 관리와 협상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이병곤 교수

05

생활경영
Life Planning and
Management
임태순 교수



학교가 주는 선물...
SCU 「멘토링 경영 워크숍」

학교생활 만끽하는 SCU 멘토링 체계적이고 실질적 문화로 확립

지난 5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복지시설경영학과가 주관한 「멘토링 경영 워크숍(Mentoring Management Workshop)」이 그것. 멘토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는, SCU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율성에서부터 멘토링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참가자들의 호평을 샀다.

글 | 편집부

‘이’ 라인 학습 체계 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신·편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신·편입생들에게 같은 학과 재학생 선배들을 멘토로 배정, 수업 및 학습 방법에 관한 조언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1,200여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멘티에 비해 멘토가 상당수 부족한 상황이다.

멘토(mentor)는 멘티(mentee)에게 있어 부모와 같은 존재여야

“멘토링 제도는 신·편입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에 아주 탁월한 수단입니다. 멘토들의 경우 최대 2학점까지 사회봉사 점수가 주어지기도 하니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은 듯하여, 복지시설경영학과 이종구 학생회장의 협력으로 「멘토링 경영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삼식 학생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워크숍의 첫 순서는 교양학부 오해섭 교수의 강연이었다. 오 교수는 <멘토의 역할과 멘토링의 기술>을 주제로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정리하였다. 특히 ‘멘토(mentor)는 멘티(mentee)에게 있어 부모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정의하며, 멘토링 제도의 원칙을 강조했다.

“멘토는 멘티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보장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멘토에 대한 멘티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힘이자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복지시설경영학과 이은주·송순옥 학우의 쿨트 영상도 워크숍의 재미를 더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재치있게 풀어 멘토링 제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2부에서는 복지시설경영학과 박종묵 학우의 ‘멘토링 경영법’ 특강이 열렸다. 2009년부터 SCU의 멘토링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그는, 송순옥 학우의 멘토이자 현재 멘토링 캠프장이기도 하다.



이재웅 총장은 멘토링 제도가 “형식화된 프로그램에 그칠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로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워크숍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멘토는 멘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도(正道)로 공부하는 학습 태도’는 멘토링 시스템에서 최고로 중요한 요소’라는 말로 입을 연 박종묵 캠프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총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멘티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을 전수하는 것. 오프라인 모임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멘토링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멘티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멘티들과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멘티가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등을 두루 헤아리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참석 아래 멘토의 집에서 모임을 가져도 좋다. 세 번째는 멘티들이 멘토링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학교 행사를 비롯해 동아리 모임, 학년 모임 등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멘토들이 멘티들을 유도해야 한다. 네 번째, 멘토는 ‘멘티 안의 멘토’를 이끌어내 멘티가 멘토로서 또 다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야 한다. 이때 ‘멘토는 멘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강력히 인지시키는 게 핵심이다.

박종묵 캠프장은 “시험부정에 대한 제의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멘티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멘토의 윤리적 자질을 거듭 당부했다. 복지시설경영학과 이종구 학생회장은 “멘토링 학교를 개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식을 가지는 등 멘토링에 참가하는 학우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며 멘토링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허요연 학생처장은 “이 시간을 기점으로 멘토링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재웅 총장은 “형식화된 프로그램에 그칠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로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며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워크숍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멘토는 멘티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보장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멘토에 대한 멘티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힘이자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Exhibition

오르세미술관전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반 고흐의 <아들의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빛의 마술'의 절정을 선보이게 될 2011년 최고의 전시. 반 고흐, 모네, 고갱, 르누아르, 세잔, 밀레, 앵그르를 포함한 19세기 후반의 대표 작가들의 회화, 대생, 사진 등 들을 전시하고 있다. 19세기의 문화·예술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고전주의의 대표작가인 앵그르와 사실주의의 거장 쿠르베, 밀레의 최고의 작품인 <봄>과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고흐의 <아들의 별이 빛나는 밤>, 이밖에 드가, 세잔, 르누아르 등 프랑스 회화의 황금기를 만든 화가들의 주옥같은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 134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기 간 : 2011. 6. 4(토) ~ 9. 25(일)
■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Movie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 최종회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가 7월 14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된다. '죽음의 성물 2'는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의 운명을 걸고 볼드모트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과정을 담았다. 2001년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이후 시리즈 7번째 작품이다. 지난해 개봉한 '죽음의 성물 1'과 하나로 묶인 것으로 러닝타임이 길어 두 편으로 나눠 개봉하게 됐다. 데이비드 예이츠(48)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대니얼 래드클리프(22), 에마 왓슨

(21), 루퍼트 그린트(23) 등 1편부터 출연한 배우들이 마지막 편까지 출연했다. 한편,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46)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1997년 6월 시리즈 첫 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출간된 후 완결편인 7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나온 2007년 7월까지 67개 언어로 200여개 나라에 소개되며 총 4억부 이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트위터 매너... 강요나 '끼리끼리' 문화 피해야

요즘 매스컴을 통해 유명인들의 트위터 발언이 종종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는 2000년 미국의 오데오(Odeo)라는 회사에서 나온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05년쯤 문자(SMS)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status'라는 이름에서 '지저귀다'라는 뜻의 twitter로 이름을 바꾸고 200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를 활용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트위터 이용자들이 늘면서, '트위터 매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 1 **팔로우 강요** - 트위터에서는 상호 맞팔을 하는 경우, 정보 교환이 수월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트위터는 싸이월드의 일촌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구독' 개념이다. 상대의 동의없이 관심인물을 자유롭게 '팔로우' 혹은 '언팔로우'하여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트위터의 특징이기 때문에 팔로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2 **RT 남발** - 리트윗이라고 하는 RT는 공감대 형성, 동의, 첨부 등의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RT를 남발하거나 원문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사적인 내용을 RT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다.
- 3 **무분별하게 팔로우 수 늘리기** - 가끔 프로필을 보면 아무런 정

보도 나와 있지 않고 팔로우 수는 한 자리인데 팔로잉 수만 1,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유명계정인데, 계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트윗을 하지 않는 계정을 뜻한다.

- 4 **성적인 발언 또는 욕설** - 프로필 상에 여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외모를 나무라거나, 한 번 만나자는 트윗을 보내는 사람, 또한 욕설을 난발하는 사람들. 아무리 트위터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예의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언팔을 하게 되는 케이스이다.
- 5 **연속 투고 자제** - 트위터에 내 이야기만 들으러 오는 사람은 없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광고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노골적인 광고로 인상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트위터가 매우 거북한 스팸문자와도 같은 것이 되지 않으려면, 트윗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올리면 된다.
- 6 **개인적인 대화는 메신저로** - 트위터를 메신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적인 대화로 남의 화면을 가득 채우면 이것 역시 일종의 스팸이 될 수 있으므로, 쪽지(DM)나 리플라이(REPLY)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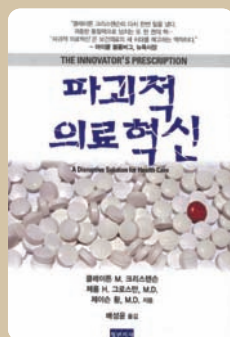


Book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 추천 파괴적 의료혁신

『파괴적 의료혁신』은 의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건 의료 자체를 파고들기보다는, 지난 20년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케네디 스쿨의 연구성과를 통해 정립된 '혁신 관리의 일반모델'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건 의료 산업을 들여다 본다. 혁신 관리 모델은 수많은 산업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이 책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해 보건 의료 비용은 왜 점점 비싸지고, 접근성은 왜 날로 악화되어가는지 근본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건 의료료를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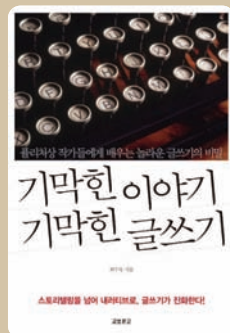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제롬 H. 그로스만, 제이슨 황 지음, 배성윤 역음, 청년의사



상담심리학과 최은실 교수 추천 기막힌 이야기 기막힌 글쓰기

이 책은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보여준 프랭클린 박사의 자전적 체험수기이다. 저자는 강제수용소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정신분석 방법인 '로고테라피'를 창안한다. 이 책은 저자가 가족의 죽음과 굶주림, 혹독한 추위와 핍박 속에서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로고테라피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최수목 지음, 교보문고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 추천 리틀 턴: 희망의 비상

자신의 내면으로 날아간 작은 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리틀 턴: 희망의 비상』. 어느 날 갑자기 날지 못하게 된 작은 새 리틀 턴. 절망하던 리틀 턴은 별뿔별과 꽃과 나비와 달랑게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갈매기의 꿈>의 조나단이 역경을 극복하고 선택받은 존재가 되어 높이 비상했다면, 리틀 턴은 평범한 것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날아오른다. 하늘을 날아다니느라 몰랐던 자신과 세상에 관한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리틀 턴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게 한다.

브룩뉴먼 지음, 박종만 옮김, 창미래출판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 추천 유진과 유진

아동의 성폭력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성장소설. 유치원 시절에 함께 성폭력을 당한 두 중심인물 '큰유진', '작은유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저자는 이성애에 대한 고민, 세상을 뒤덮은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관심, 수다스럽고도 재기발랄한 대화 등을 통해 때로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춘기 소녀들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또한 동명이인 주인공의 설정, 중학교 교실에서의 우연한 해후, 상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주인공의 특별한 심리 등 소설적 장치가 곳곳에 배치되어 이야기의 흥미를 더해준다.

이종환 지음,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우리는 캠퍼스커플, 사랑의 뿌리는 SCU

글 | 임원택(사회복지학과 4학년) · 김희경(사회복지학과 2학년)

20 10년, 31살이라는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우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각종 오프라인 행사나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우활동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SCU사회봉사단에서 주최하는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첫날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결국 저희들은 오전 봉사활동을 끝으로 그날의 봉사활동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속소로 돌아가 학우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마친 후, 간단한 친목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 당시 3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 각자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취침에 들어가고 남은 소수의 인원엔 신랑과 제가 합류를 하게 되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을 통해 신랑은 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호감 표시를 해왔고 낯선 곳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를 위해 밤새 차를 마시며 애기도 나누고 산책을 나와 들꽃을 꺾어 주며 저희의 첫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랑과 저는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신랑은 군인임에도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한결같은 모습을



금년 5월 1일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캠퍼스 커플 임원택 · 김희경 학우.



보여주었고 이후 현재의 4학년 선배님들과 부산여행을 계기로 정식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싶었지만 신랑이 군인신분이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고 데이트가 아닌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기에 헤어질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성실함과 한결같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의 생일이자 100일 이었던 지난 해 11월 20일 강촌에서 프로포즈를 해왔고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한발 물러나

저희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2011년 5월 1일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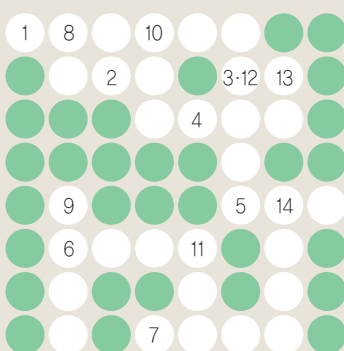
지금 신랑은 국가를 위해 화전에서 나라를 지키고 저는 서울에서 국가안보에 힘쓰며 서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저희 두 사람에게 배움이라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사회복지학과를 통해 봉사의 행복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세로열쇠

- 태양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 인류가 사는 천체.
-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혼자서 하는 시위.
- 학교나 나들이 갈 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음식.
- 산삼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해외로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가는 행위.
- 군사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훈련을 시킨 개.
- 조선시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2011 여름호 문제



가로열쇠

-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등을 통해 소장도서나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한 도서관. 전자도서관이나, 또는 가상도서관이라고도 한다.
-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일.
- 바다를 무대로 하여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
- 여름철 과실로 노랑고 결이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해마다 OO축제가 열린다.
- 최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으면서 이 물질이 대거 유출되었다.
-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은, 인정이 없고 냉혹한 자를 말한다.
- 각자 독립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한대 묶은, 단편집과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영화의 한 장르. OOOO영화.

SCU 학사제도 해설 시리즈 1

수강신청이 궁금해요

■ 재학기간 중의 학기별 수강계획 수립

- 졸업학점을 고려하여 수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우리 대학의 졸업 가능 학점은 총 140학점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교양 35학점 이상(필수 4학점 포함), 전공 42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졸업 학점 이수 현황 표] (위치 : 학생포털>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졸업' 탭 클릭)

구분	필수교양	선택교양	교양	전공	일반	총합	상세내역
졸업이수요건	42	0	0	4	31	0	140
면입학	0	0	0	0	0	0	0
이수학점	0	0	0	12	34	3	144
이수율계	0	0	0	13	34	3	144
정규학기수준	3	0	0	0	6	0	18
계열학기수준	0	0	0	0	2	0	3
대수예결율계	3	0	0	13	43	12	165

- 위 메뉴를 통해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현황과 잔여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학점(맞췄을 수 있는 숫자)을 클릭하면 우측의 상세이수내역에 정보가 보입니다.
- 4년 동안 140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매학기 평균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기별 학점 이수 계획을 세워 수강신청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고, 직전 정규학과 계절학기를 합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학과별 5과목 이내로 제한됩니다.

■ 수강신청 과목 선택

- 과목별로 개설 학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각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표를 통해 과목별 개설학기를 안내하고 있으니 자격증 관련 과목 수강 등 수강계획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 수강 시 학과, 학년 제한이 없습니다.
- 학생은 소속 학과, 소속 학년에 관계없이 개설되는 과목 중 어떤 과목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수업의 기초를 쌓기 위해 낮은 학년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하시고 자신의 소속 학년 교과목들을 수강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험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과목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수강신청 전에 해당 학기 시험 시간표에서 과목별 시험일정을 확인하여 특정일에 시험과목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글 | 남상규 교무부처장

아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 퀴즈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2011 봄호 정답



■ 2011 봄호 당첨자 & 한마디

- **신정혜** : 표지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인들 사진과 더불어 매회 SCU에 충고나 비전을 제시해주는 기사를 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수님 학창시절 이야기나 공부비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 좀 더 다양한 구성의 이벤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e아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백은영** :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합니다. 편입생들은 학교에 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재학생 선배님들의 공부 비결 노하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인윤주** : 학우님들의 학습 노하우와 일상의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 **이상민** :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나 맛집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을 담은 우리 소식지가 좀 더 자주 발행 되었으면 합니다.
- **이선혜**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포함한, 더 좋고 알찬 내용 부탁드려요.
- **권소원** : 지금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 담아주세요!
- **심규홍** : 동문 선배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실린 내용들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정은** : 교수님 추천 도서 같은, 문화나 여행 관련 페이지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정광희** : 학우들의 일상 속 이야기와 각 학과 졸업생의 진로정보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러닝 시스템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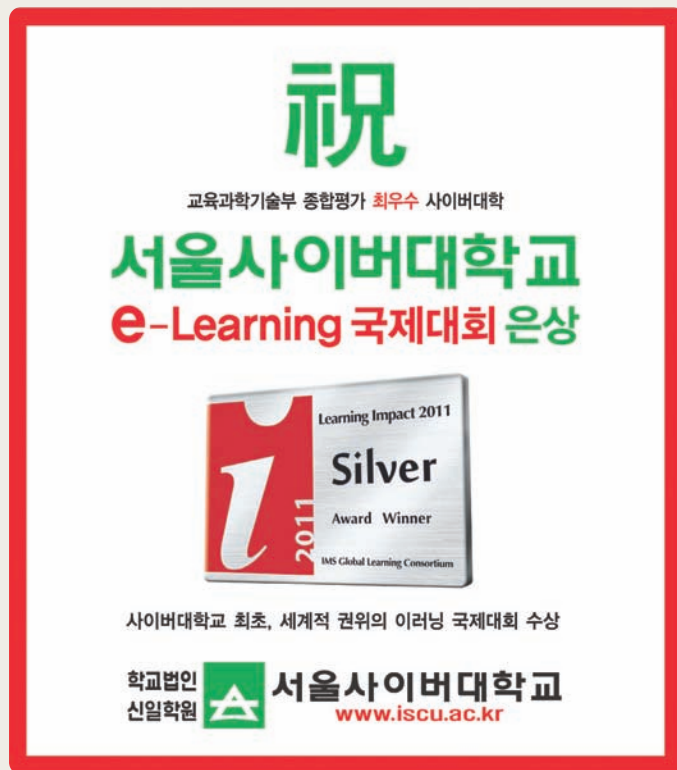
세계이러닝 대회 'IMS LI Award 2011' 은상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이러닝 국제대회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SCU Learning WAVE(이하 WAVE)'로 상용화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IMS LI Award'는 세계적인 이러닝 컨소시엄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이하 IMS GLC)에서 개최하는 Award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의 이러닝 관련 기업/기관이 참가해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력 입증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에서 권위있는 글로벌 이벤트이다.

'WAVE'는 서울사이버대가 지난 2년간 기획과 연구, 개발을 거쳐 만든 이러닝 시스템으로 고등교육을 이러닝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이러닝 콘텐츠의 설계, 개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반한 수업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전 세계 13개국 29개 기관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WAVE' 시스템은 기존 이러닝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학습도구 수 및 기능의 제약, 폐쇄성, 수동적인 학습도구, 제한된 학습경험, 높은 콘텐츠 유지 및 수정 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개념을 포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1 상반기 네티즌 파워브랜드 선정



학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평가 기관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 받아왔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일간스포츠와 조인스닷컴이 진행한 '2011 상반기 네티즌선정 파워브랜드'로 선정되었다. 일간스포츠-네티즌 선정 파워브랜드는 신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네티즌들의 소비동향과 브랜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간스포츠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행사이다. 지난 해부터 조인스닷컴의 후원을 통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올해 개교 10년째를 맞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4년제 학사학위뿐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대학교이며,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사이버대

재학생을 위한 릴레이 심리검사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을 위한 릴레이 심리검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의 'MBTI를 통한 내 성격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직접 심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특강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심리검사(성격유형검사, 투사적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TAT 주제통각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를 집단으로 실시하고 검사에 대한 설명과 집단 해석을 진행한다.

학교법인 신일학원, 제10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개최



학교법인 신일학원 신일스승상위원회(위원장 정원식 前국무총리)는 5월 14일 11시,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오랜 세월 교육계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평교사 7명을 선정해 격려하는 '제10회 신일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2년에 제정된 신일스승상은 신일중·고등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 설립자인 고이봉수 신일학원 이사장의 뜻을 기려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 평교사들의 숨은 공로를 찾아 격려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심사는 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평교사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접수 후 교육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신일스승상위원회(정원식 위원장 외)의 엄격한 심사과정과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신일학원에서는 이번 시상식과 함께 신일스승상 10주년을 기념하는 <신일스승상 기념집-참스승의 길>(260면, 양장본)을 발간하였다.

'통합 모바일 서비스' 오픈 스마트폰 활용, 시공간 넘어 학습 가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18일부터 '통합 모바일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통합 모바일 서비스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웹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가입 통신사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해당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더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기존의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메뉴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새롭게 제공되는 메뉴에는 대학소개, 대학공지, 입학안내, 학사정보, 수업정보, 강의수강 등 기존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강신청 현황이나 이수성적 조회, 졸업요건 충족현황, 과제현황 등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학사관리 정보까지 포함해 재학생들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도 일반인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모바일 강의 맛보기, 입학상담 및 학과교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입학지원 및 합격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입학 지원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내 후배는 내 손으로' 캠페인 시상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2일 본교 제1 회의실에서 '내 후배는 내 손으로' 캠페인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본 캠페인은 사이버 대학교육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최첨단 교육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서울사이버대의 교육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1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총 737명이 후배들을 추천,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이지영 학우가 30명을 추천하여 최다추천인에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성학(군경상담학과 4학년, 연평도 근무로 불참) 학우가 12명, 권민서(상담심리학과 4학년) 학우가 11명을 추천하여 공로패와 부상을 받았다. 이재웅 총장은, "추천 캠페인이 해를 거듭할수록 본교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방효복 동문 내정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전 국방대 총장인 방효복(61, 육사 30기) 동문이 6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다. 방 원장은 197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0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11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을 지낸 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1985년 미국 합동참모대학을 수료하고 2001년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최고령 졸업생으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제6회 해외탐방 프로그램...호주에서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6회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에서 실시한다. 국제적인 시각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춘,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서사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본 행사에서는 시드니 대학캠퍼스

투어, 록스지역 역사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된다.

천사들 모임...권오중 동문 샘플상 수상

월간 '샘터' 의 2011년 샘플상 수상자로 탤런트 권오중 동문이 이끄는 봉사단체 '천사들의 모임' 이 선정됐다. 샘플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사람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으로 '샘터' 독자들이 1년간 익명으로 '샘물 통장' 에 보낸 성금이 힘께 전달된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000만원이 모금되었다. 탤런트 권오중 동문은 본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대사를 겸하고 있다.



지역 '만남의 날' 행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역캠퍼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캠퍼스, 재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하여 2010년부터 매달, 지역 만남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행사는 온라인에서 마주하던 교수들이 지역캠퍼스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하고, 이후 재학생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학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캠퍼스 위치 및 연락처

지 역	주 소	연락처	조교	운영시간
캠퍼스	인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34-28 중보빌딩 4층 401호	032-330-3831	문송애	매주 화~토 13시~21시
	경기 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1508-6 갑을빌딩 3층	031-422-1225	김재현	
	강원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31-1 3층	033-244-6446	윤지혜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6-2 2층	053-755-7573	박명은	
	부산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1가 39번지 4층	051-413-2410	한지현	매주 수~일 13시~21시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24 지승빌딩 6층	062-352-5885	나영이	
제주 한국 리더십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663-11 동남빌딩 4층	010-5055-0537	방지연 지역회장	

SCU동정

김윤나 교수, 인권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4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평생학습도시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를 게재하였다.

김현아 교수, 『상담심리 가이드북』 출간 및 논문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3월 31일 『상담심리 가이드북』(복스힐 발행)을 출간하였다. 또한,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적응유연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해외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박형원 교수, 아동 행정문제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는 5월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문숙 교수, 『현대사회와 여성』 발간



사회복지학과 이문숙 교수는 6월 7일 『현대사회와 여성』(교문사)를 발간하였다.



심선경 교수, 사회복지 자원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회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2호 (통권 제32호)에 <민간의 사회복지 자원 할당을 위한 아젠다 설정과정 사례연구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험>을 게재하였다.



이서영 교수, 장기요양보호 관련 논문 게재

노인복지학과 이서영 교수는 3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옹호 시스템 연구>을 게재하였다.



이성태 교수, 전시회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성태 교수는 (사)한국콘텐츠학회에서 주최한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에 작품 <스마트폰 이야기>를 출품하고,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하였다.



이우경 교수, 정신분열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6월 정신분열병학회지(49권 1호)에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집단 프로그램이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음성 증상, 정서 상태 및 병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이향아 교수, 전시회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사)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 주최한 「Spring INTERNATIONAL DESIGN FAIR 2011」에 작품 <봄>을 출품하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시하였다.



이희연 교수, 여성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이희연 교수는 5월 31일, 「아시아 여성연구」(제50권 제1호)에 <생애사를 통해 본 공공부조수급 여성가구주의 삶>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임세희 교수, 아동지원 주거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5월 12일~14일 대전 LH 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아동 지원 주거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임태순 교수, 『경영 분석』 외 2권 출간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경영 분석』, 『기업 윤리』, 『주식시장과 투자』 (한국학술정보 발행)를 발간하였다.



전호진 교수, 기업가치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3월 30일 (사)한국무역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기술무역 의존도와 기업가치 간의 실증분석 무역연구>를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전시회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사)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에서 주최한 「2011 베스트 디지털 디자이너 국제초청 정기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대학로 이앙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2011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

마음속에 담아둔 꿈, 이곳에서 이루자

2000년 국내 최초 온라인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평생교육의 동반자이자 세계적인 e-learning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성인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금번 6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반기 신·편입생 총 4,416명을 모집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쟁력은 강의방식과 콘텐츠에서 출발한다. 교수와 학생이 마주 앉아 직접 수업을 하는 듯한 ‘크로마 강의’를 비롯해 3D 영화처럼 강의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VRML 강의’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을 강의에 접목했다. 지난해 구축한 U-캠퍼스를 이용하면 강의수강과 출석체크 등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사관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참여와 토론수업 등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수업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오프라인 단독캠퍼스와 전국 7개 지역에 지역 캠퍼스를 두고 지역만남의 날, 문화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재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1:1 전담 조교제, 맞춤형 수강지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미

국 존스국제대학(JIU)과 창업지도사 자격증, 프로젝트 관리사(PMP) 자격증 과정을 공동 개설하는 등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 모집학과는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사회과학부(부동산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5개 학부 13개 학과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진 정원 내 전형(542명)과 산업체전형, 군위탁생전형, 학사편입전형, 장애인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등 정원 외 전형(3,874명) 등으로 총 4,416명을 선발한다.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교서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 취득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apply.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최우수평가 최우수사이버대학 -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02-944-5000

■ 모집인원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학부	학과	일반+특별			산업체 위탁생			군 위탁생			학사	장애인			교육기회균등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인간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35	33	111	118	101	40	120	121	73	95	32	28	27	27	16	16	16	15	14	31	59	70
	복지시설경영																						
심리상담	상담심리																						
	가족상담	11	15	52	163	184	94	68	117	4	5	46	45	34	32	40	26	19	19	14	91	91	72
	군경상담																						
사회과학	부동산																						
	법무행정	52	37	47	73	66	30	77	75	46	71	23	22	17	24	22	17	10	9	14	50	44	41
	보건행정																						
경상	경영																						
	국제무역물류	12	40	56	40	49	4	56	86	59	82	23	20	17	21	21	17	9	9	78	44	40	37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	컴퓨터정보통신																						
	멀티미디어디자인	2	11	28	32	46	6	17	36	3	43	11	11	10	9	11	9	4	5	4	24	25	19
총 합		112	136	294	426	446	174	338	435	185	296	135	126	105	113	110	85	58	57	47	240	259	239
		542			1,046			958			296		366			308			162			738	

■ 공동 학력자격

전형유형	학력 자격
1학년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시간제	•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입학전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지원가능
특별	직장인, 개인사업자, 농어촌거주자, 전업주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신입학만 해당], 전문대졸업자[편입학만 해당],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학사편입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이 가능한 자
교육기회균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 또는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학년 학력이상 <학력확인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산업체/군위탁생	산업체 위탁생 : 본교 위탁협력업체 소속 임직원(공적증명서로 재직 확인이 가능한 자) 군 위탁생 : 군국비위탁생 및 군자비취학 추천자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
- **발 행 인** 이재웅
-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 행 일** 2011년 6월 30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네트웍 (02)518-3430